

팝페라 테너 임형주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명예홍보대사 됐다

팝페라테너 임형주가 201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임형주는 15일 행사 개막식에서 재능기부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명예홍보대사로 본격적인 활동을 펼친다. 임형주는 지난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홍보대사를 맡으며 광주와 인연을 맺었다.



디자인비엔날레 조직위는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광주 디자인비엔날레와 팝페라 테너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임형주씨의 이미지가 어울린다고 판단해 위촉하게 됐다”며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때처럼 이번 행사도 큰 애정을 갖고 활약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조대부고 총동창회 동문 친선체육대회



조대부고 총동창회(회장 이민수)는 지난 11일 조대부고 운동장에서 '2015년 동문 친선체육대회'를 가졌다. '자랑스런 조대부고인상'은 17회 졸업생인 최주남 금제산업(주) 대표가 받았다.

<조대부고 총동창회 제공>

광주상의 브리핑룸 문 열어



광주상공회의소는 12일 광주시 서구 광주상공회의소 2층 사무실에서 광주상의 관계자와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브리핑룸을 개소하고 언론관련 업무를 시작했다.

<광주상의 제공>

인사

- ◆광주시
 - ◇서기관 (4급) 승진 ▲재난대응과장 이치선
 - ◇서기관 전보 ▲자치행정과장 문정찬 ▲문화산업과장 서병천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학측

- ▲고인수(전 무등일보 기획실 부장)·정현수씨 아들 성은군 김수원·황연순씨 딸 지예양=17일(토) 낮 12시 광주시 서구 상무리초컨벤션웨딩홀 1층 아이비홀.
- ▲홍세영(전 한국전력)·김순동씨 아들 현창(교보생명)군 문영홍(농협 여수시지부장)·김신화씨 딸 향양=17일(토) 오후 2시 여수 히든베이호텔 웨딩홀.
- ▲이광욱·김정진씨 아들 이재경(축산물 품질평가원)군 송승중(광주U대회 조직위 경기시설부장)·김복순씨 딸 해영(광주 남구문화원)양=18일(일) 오전 11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S타워컨벤션 3층 메리골드홀.
- ▲이민래(쉐보레)·양승희(효천초 교장)씨 아들 세영군 남상영·정미양씨 딸 연희양=25일(일) 오후 1시50분 광주시 서구 벽진동 제아트웨딩컨벤션 3층 알루체홀.

종친회

- ▲(새)전주씨서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

원(지원장 이달우) 이화회 월례회의=13일(화) 오후 6시 도지회 회의실 3층 062-225-5636.

▲경주배씨 광주중친회 월례회의=15일(목) 오후 6시 광주시 동구 대인동 상성한 민어·전여 회관 010-8623-4949.

동창회

- ▲광주공업고등학교 총동창회(회장 임채욱) 한마음 큰잔치=18일(일) 오전 9시 광주공업고등학교 운동장 문의 062-511-1946.
- ▲송원고등학교 총동문회 한마음대축제=18일(일) 오전 8시30분 송원대학교 운동장 문의 062-384-7447.
- ▲학다리 중·고교 총동문회(회장 노진명) 한마당축제=18일(일) 오전 9시 합평군 학교면 학다리 중·고등학교 운동장.
- ▲광주 북성중학교 총동창회 제40회 한마음대축제=24일(토)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광주 북성중학교 잔디구장(우천시 체육관) 062-523-1300.
- ▲제38회 일고인 한마당=25일(일) 오

전 9시 광주제일고등학교 운동장 062-527-1955.

알림

-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 실시. 062-526-3370.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애차별 상담=국번 없이 1331, 우편 방문-광주시 동구 제봉로 광주은행 본점 6층.
-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률 무료 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바꾸기 등(실버에 한함) 062-365-8228.
-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062-652-1366, 062-434-1366 www.gene-korea.com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음주와 우울, 불안, 스트레스, 치매, 인터넷 등 무료 상담, 열린마음상담센터(오·주·일·무등·우산·각화)에서 매주 월·목·오·후 2시~6시까지, 문의 062-526-3370
-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무료 상담=성폭력 피해자 상담, 의료 지원 및 법률지원 062-521-1365.
- ▲광주신세계희망장남감도서관 자유놀이실 무료이용=건강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장난감 대여 및 놀이공간 제공 12세 미만 아동은 누구나 이용 가능. 광주 북구 오지2동 광주종합사회복지관 3층 월요일 휴관,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30분. 토요일 오전 9시~낮 12시. 062-264-0060.

모집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스토리 창작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스토리 관련 기업인·작가·작가 지망생, 주소지가 전남인 누구나 가능, 14일까지 모집, 문의 061-280-7044.
- ▲팔공문화 아카데미(원장 조대호)회원

=만화기초수업 초등학생부·중학생부·고등학생부·일반부·취미반 수시모집(원장님 1:1개인지도, 남구 방림동 생선협 3거리 070-4065-5054, 010-8947-3006).

▲광주항교·성교관유도회 광주광역시 본부 회원=우리민족 전통문화 계승발전

을 위하여 유림활동에 관심있는 분 환영. 062-672-7410, 7008.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봉사자=음악(악기)에 재능이 있는 자원봉사자 모집, 최소 6개월, 주 1회 2시간 가능하신 분 062-233-0468.

“코리안드림 꿈꾸는 동포 돕고 싶어 변호사 됐죠”

한인 최초 美 선출직 판사 강진 출신 채동배 변호사

전남대 교수 재직하다 美 이민한인 영주권 취득 등 쟁겨주고 1985년 첫 호남향우회 만들어 한국인 노벨문학상 나왔으면



로 한인회를 창립했다. 이곳은 공군기지가 있어 미군과 국제결혼을 한 한인여성들이 많은데, 이들을 돕기 위해 단체를 결성한 것이

강진 출신이자 미국에서 한국인 최초의 선출직 판사로 활동하고 있는 채동배(78) 변호사가 10년만에 고향을 찾았다. 12일 모교인 전남대학교에서 후배들을 만난 것이다. 한국 문학번역원이 서울에서 주최한 '제14회 한국 문학 번역 출판 국제워크숍'에서 기조강연을 마친 후 내친김에 전남대를 찾았다. 채씨는 지난 1995년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다가 텍사스주(州) 델라스 시(市) 법원 판사로 선출돼 현재까지 법정에 서고 있는 전라도 출신 인사다. 시민투표를 거쳐 판사를 선발하는 미국에서, 한인 최초의 선출 판사다. 35년째 미국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 그는 애초부터 법학 전공자는 아니었다. 1960년 전남대 영어영문학과를 거쳐 미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모교에서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5년간 전남대 강단에 섰던 그는 또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텍사스대에서 문학박사 과정을 밟은 후 미 테렌트 카운티 칼리지대학에서 역사학 교수로 학생을 가르쳤다. 결국, 1974년 미국 이민자가 됐다. 고향을 떠나 미국이라는 땅에서 차별받고 있는 한국 동포들을 돕고 싶었던 그는 40세라는 늦은 나이에 서던메소디스트 대학교로

스쿨에 도전해 3년 뒤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1970년대 한국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건너오는 시기였죠. 하지만 미국에서 심한 차별을 받아야 했어요. 수없이 사기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을 도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후 건물주에게 쫓겨난 상인들의 조력자가 됐고, 미국법을 모르는 한국인들을 위해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은 물론 매매계약서 작성까지도 꼼꼼히 챙겼다. 당시 한국인 변호사가 없었던 시절이라 그는 ‘이민자들의 아버지’로 불렸다. “포부를 펼치기 위해 고향을 떠난 한국인들을 도우면서 가장 큰 행복이 그들의 성공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채씨는 델라스 인근 토프위스에서 처음으로

다. 1985년에는 미국에서 첫 호남향우회 만들고 초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호남향우회가 탄생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는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인권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1999년에는 한국 정부로부터 국민포장을 받기도 했다. 폴브라이트 교관교수로 지난 2003년부터 1년간 서울대 법대에서 강의를 하면서 대법원 특별고문으로도 활동했다. 애초 문학을 전공했었던 그는 “많은 한국인이 경제, 정치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지만 문학에서는 중국과 일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전남지역 대표 작가로 꼽히는 조정래 선생의 태백산맥과 송기숙 선생의 녹두장군은 민족 고유의 특색을 담고 있는 뛰어난 작품인데도 노벨문학상에 도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채동배 판사는 “한국문학이 훌륭하지만 세계시장에서 통하려면 번역과 출판 생태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한국문학번역원이 미국에서 출판사를 설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활동폭을 넓혀줌으로써 한국인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밀가루로 사람들 마음 홀리고 싶었어요”

전국 기능경기대회 대통령상 여수정보고 이승하양



여수의 한 고교생이 제과제빵 부문에 입문한 지 3년 만에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당당하게 대통령상을 거머쥐었다. 주인공은 전남 여수정보고학교 관광조리과 3학년 이승하(19)양. 이 양은 5일부터 12일까지 울산에서 열린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제과제빵 직종에서 금메달과 함께 최고점을 받은 선수에게 주어지는 대통령상까지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밀가루라는 소박하고 친근한 재료로 사람들의 입과 마음을 홀릴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제과제빵 직종을 선택했어요. 부모님의 한결같은 믿음과 응원이 가장 큰 힘이었는데, 생각지 못한 대통령상까지 수상해 감격스러울 뿐이에요.” 3일 동안 치러진 이번 대회에서 이양은 후반부에 제시된 ‘쁘띠 디저트’와 ‘설탕공

예’에 특히 심혈을 기울였다. 설탕공예는 가장 좋아하면서 잘 하는 분야였음에도 지난해 대회에서 실수 하나로 고배를 마셨기 때문이다. 이번 대회에서 이양은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날개 달린 말 페가수스의 비상을 정교한 손기술과 화려한 색깔로 형상화해 심사위원과 관람객들의 찬사를 독차지했다. 이양은 제과제빵직종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여수정보고학교 관광조리과에 입학하면서부터다. 어린 시절 웨딩업에 종사하는 부모님 덕분에 결혼식장의 화려한 꽃꽂이와 음식들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분야의 길을 걷게 됐다. 특히 설탕공예와 뷔페 디저트, 쿠키 등 화려한 맛과 색다른 맛에 이끌렸다고 한다. 이양은 고등학교 입학 후 기술을 익히기

에 특히 심혈을 기울였다. 설탕공예는 가장 좋아하면서 잘 하는 분야였음에도 지난해 대회에서 실수 하나로 고배를 마셨기 때문이다. 이번 대회에서 이양은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날개 달린 말 페가수스의 비상을 정교한 손기술과 화려한 색깔로 형상화해 심사위원과 관람객들의 찬사를 독차지했다. 이양은 제과제빵직종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여수정보고학교 관광조리과에 입학하면서부터다. 어린 시절 웨딩업에 종사하는 부모님 덕분에 결혼식장의 화려한 꽃꽂이와 음식들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분야의 길을 걷게 됐다. 특히 설탕공예와 뷔페 디저트, 쿠키 등 화려한 맛과 색다른 맛에 이끌렸다고 한다. 이양은 고등학교 입학 후 기술을 익히기

위해 3년 동안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학교 수업과 학원 연습을 병행했다. 대회를 앞두고는 아침 9시부터 하루 12시간 이상 맹연습을 이어가 지독한 연습벌레라는 소리를 들었다. 이양은 이번 대회의 사소한 실수를 교훈 삼아 더욱 열심히 노력해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양은 이번 대회 금메달 수상으로 2017년 아랍에미리트(UAE)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선수선발전 출전권을 얻었다. 그는 “스무살로 성인이 된 해에 국가대표 선발 평가전을 치르는 만큼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기량을 연마, 기능올림픽에 꼭 출전해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연합뉴스

‘고바우 만화상’에 ‘맹꽂이 서당’ 윤승운 화백

‘고바우’ 김성환 화백의 업적을 기려 제정된 ‘고바우 만화상’ 올해의 수상자로 ‘맹꽂이서당’을 그린 윤승운(72·사진) 화백이 선정됐다. 고바우 만화상 운영위원회는 권영성 회장과 오룡, 박수동, 신문수 등 심사위원 4명이

참여한 최근 심사를 통해 이 같이 수상자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화백은 함북 종성 출생으로, 1963년 ‘아리랑’에 ‘자선영감’을 발표해 만화계에 발을 들였으며, 이후 1970~80년대 어깨동무와 소년중앙, 보물섬 등 청소년 잡지에서 ‘꿀짜와



한심이’, ‘두심이 표류기’, ‘맹꽂이 서당’ 등을 연재해 인기를 누렸다. /연합뉴스

1991년 문화부가 운영하는 한국만화문화대상을 수상하였으며, 2012년 서울 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SICAF)에서 코믹 어워드상을 수상했다. 고바우 만화상은 지난 2001년 동아일보 시사만화 ‘나대로’의 작가 이흥우 화백을 수상자로 선정된 뒤 매년 수상자를 선정해왔으나, 지난 2011년과 2013~2014년에는 수상자를 내지 않았다. /연합뉴스

<p>謹 上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p>	
<p>201호 故이단 님 (여/106세) 子/子婦 : 최은정, 박병현, 필수/김한수, 영수/박혜선 육수/김관숙, 현수/김태희 孫 : 박상규, 양규, 선규, 성민, 현진, 희진, 현규, 준규 태규, 은진, 선경, 민우, 영규, 송규</p>	<p>301호 故배정애 님 (남/77세) 子/子婦 : 배영진/오민영, 영복/최연희 女/婿 : 배옥순/함동백, 옥자/김일환 未亡人 : 신명자</p>
<p>• 발 인 : 10월 14일 • 장 지 : 금곡동 선영 • 연락처 : 227-4381</p>	<p>• 발 인 : 10월 13일 • 장 지 : 새로나 추모관 • 연락처 : 227-4382</p>
<p>402호 故김두석 님 (남/78세) 子/子婦 : 김재문/이금희, 재성/김미경, 안수/황미희 女/婿 : 김은희/이희균, 은자/임나신, 은남/이상혁, 은민 孫 : 정영순 • 발 인 : 10월 13일 • 장 지 : 화순 송동 선영 • 연락처 : 227-4384</p>	<p>101호 故한동수 님 (남/51세) 子 : 한민호 女/婿 : 한경희 未亡人 : 이주화 • 발 인 : 10월 13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85</p>
<p>102호 故이종근 님 (남/82세) 子/子婦 : 이만석/황경란, 성림/김정민, 성욱/제인경, 성민/임승은 女/婿 : 이남순/김석우, 명순 未亡人 : 서선민 • 발 인 : 10월 13일 • 장 지 : 화순 송동 선영 • 연락처 : 227-4386</p>	
<p>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p>	
<p>문의 (062)227-4000</p>	